월성원전 방문 말씀 포인트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주지역에 '78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특히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어제 긴급하게 한수원에 지진상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개 가동원전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동정지된 월성원전도 안전최우선원칙과 철저한 예방점검차원에서 정상운영되고 있던 원전을 매뉴얼에 따라 수동으로 정지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한수원에서는 지역주민 등과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소통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번 지진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산업 주요시설 지진방재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4기 全원전과 방폐장에 대해서는 더 강한 지진, 각종 테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한치의 허점이 없도록 원전 등 발전소의 나사하나 못하나 까지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야겠습니다.

또한, 원안위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❶비상디젤발전기 등 안전관련 핵심설비의 내진성능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보강하고 비상매뉴얼도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❷현재의 설계기준이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시한번 재점검하고, ❸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24기 全원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테스트도 속도감있게 실시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인수기지, 도시가스배관, 석유비축시설, 송전선로, 전력구 등 여타 에너지시설과 석유화학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수원은 특히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심려가 클 수 있으므로 원안위와 협조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 원자력안전협의회, 주민소통위원회 등 주민들과의 기존 협의채널을 총가동하여, 현재의 상황과 대응현황, 향후 지진방재대책 점검계획 등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한편, 주민들의 우려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한전, 한수원 등 16개 에너지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돌발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전력수급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